

##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 소그룹!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한 시점(2025년)보다 더 앞당겨진 결과이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 사회보다 더 심각한데, 교회 출석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의 32%보다 크게 높다\*. 고령 교인 목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미래 목회와말씀연구원, 아드폰테스와 함께 '고령 교인의 신앙 의식'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넘버즈 159호), 이번에 만 2년 만에 목회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적 조사 결과를 지난 7월 31일 세미나를 통해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년 전 조사 대비 직분 은퇴 전 고령 교인의 사역 지속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 고령 교인의 사역 의지는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고, 소그룹 참석자의 경우 출석교회 고령친화성을 더 높이 평가해 소그룹 활동이 노인 목회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넘버즈 224호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 교인 신앙과 시니어 목회 실태

### 조사개요

구분	시니어교인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아드폰테스/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한국 기독교시니어사역 연합 참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전국의 담임목사
표집틀		목회데이터연구소 마스터샘플) - 2024년 4월 기준 약 20,000명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노우볼링 방식</li> <li>1단계 : 교회 목회자에게 설문URL 전달</li> <li>2단계 : 교회 목회자가 해당 교회 고령 교인에게 설문 링크 전달(모바일 조사) 또는 종이 설문 조사(자기 기입식)</li> </ul>	모바일 조사(문자를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1,500명 (유효 표본) - 총 45개 교회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방법	스노우볼 추출 (Snowball Sampling)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li> <li>• 일부 교회의 응답 편향(과표집)을 방지하 기 위해 50표본 이상 응답된 교회의 응답 수를 50으로 고정하여 가중치 부여 총 1,500명을 조사했으나 가중치 적용 후 942명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li> <li>• 전국의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li> </ul>
조사 기간	2024년 5월 1일 ~ 6월 12일 (42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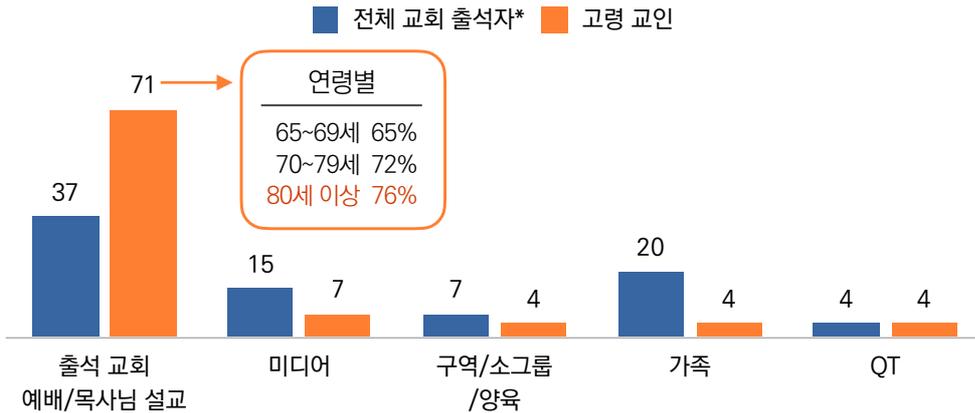
# 01

##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

### 고령 교인의 신앙, 출석 교회 목회자의 영향 압도적으로 높아!

- 고령 교인이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은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가 71%로 다른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전체 교인 조사 결과(37%)와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고령 교인에 대한 출석 교회 목회자의 높은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데이터라 하겠다.
-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를 선택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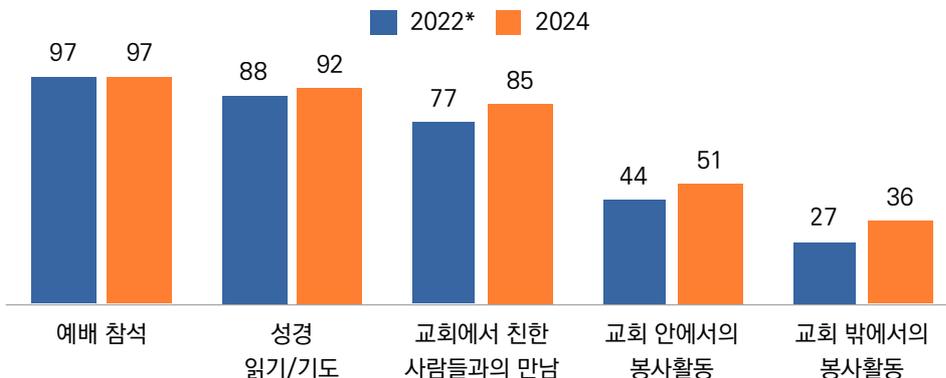


\*전체 교회 출석자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고령 교인의 예배 외 교회활동, 2022년 대비 더 활발해져!

-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각각 물었다. 가장 많이 하는 신앙 활동으로는 ‘예배 참석’ 97%, ‘성경 읽기/기도’ 92%,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 85% 순으로 나타났다.
-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 ‘교회 안/밖 봉사활동’ 등 예배 외 활동률이 높아졌다.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 요소가 사라지고, 고령 교인의 신앙 활동이 더 활발하게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신앙 활동 비율 (65세 이상 교인, '가끔+자주 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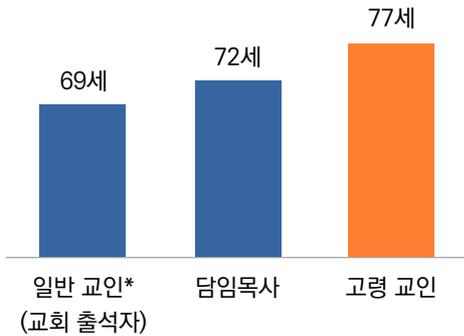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 고령 교인, 일반 교인과 목회자 생각보다 더 오래 사역하고 싶어!

- 고령 교인에게 교회의 사역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묻은 결과 77세로 나타났다. 이는 담임목사와 전체 교인들이 생각하는 나이보다 많았는데, 담임목사는 72세, 일반 교인은 69세를 사역의 최대 나이로 보고 있었다.
- 목회자나 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령 교인들은 더 오래 사역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만큼 사역 의지가 강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림] 고령 교인의 사역활동 상한 연령 인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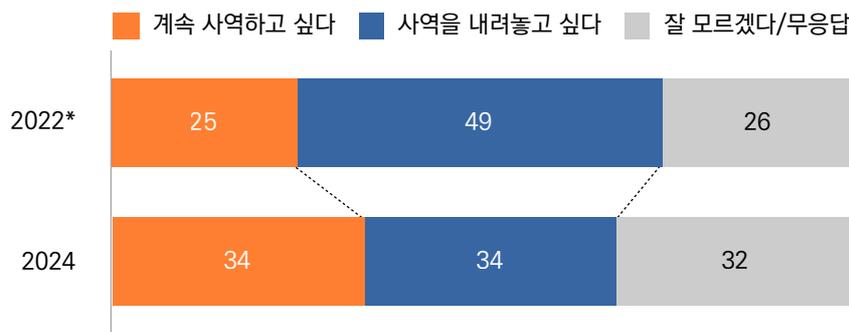


\*일반 교인 :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인의 신앙의식 조사', 2024.06.(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5.22.)

## 은퇴 앞둔 고령 교인, '은퇴 후에도 계속 사역하고 싶다' 증가!

- 교회 직분 은퇴 나이는 대부분 70세이다. 은퇴 시기 전후 고령 교인의 사역과 역할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70세 이하 고령 교인에게 '70세가 되어 건강이 허락할 경우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계속 사역하고 싶다'가 34%로 2년 전 조사 결과(25%) 대비 증가한 반면,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는 줄었다. (2022년 49% → 2024년 34%)

[그림] 직분 은퇴 후 교회 사역 희망 여부 (65~70세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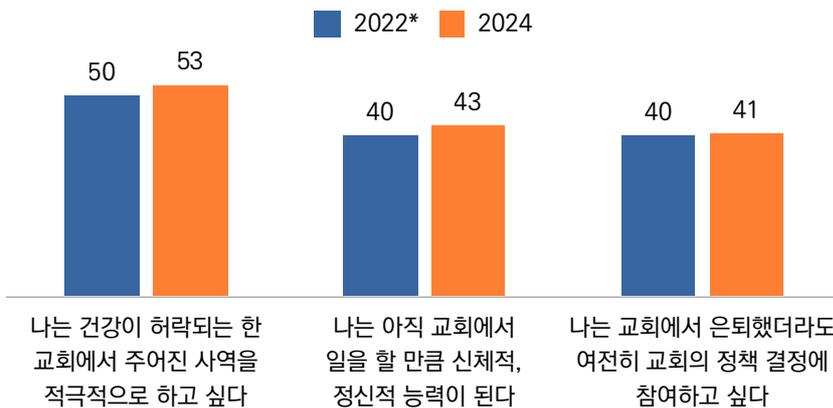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 은퇴 고령 교인 41%, 은퇴 했어도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 이번에는 교회 직분 은퇴 후인 71세 이상 교인에게 은퇴 후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에 대해 71세 이상 교인의 절반 이상인 53%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다라도 여전히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에 각각 43%, 41%의 동의율을 보였다.
-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했다.

[그림] 직분 은퇴 후 교회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71세 이상 교인, '그렇다' 비율, %)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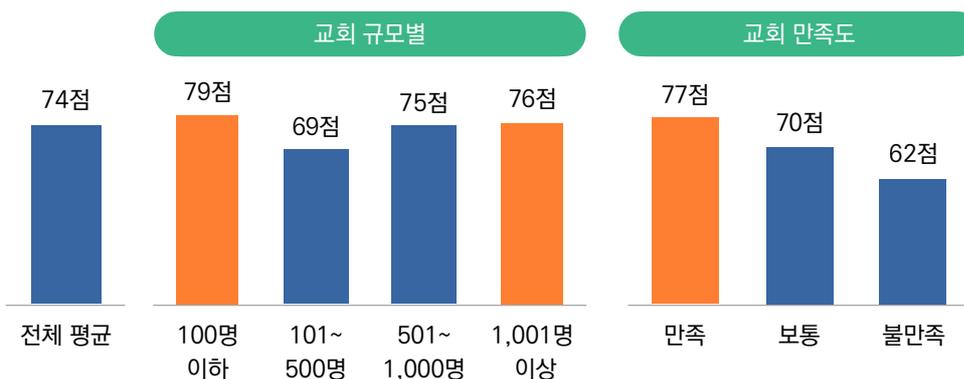
## 02

### [고령친화교회]

## 고령 교인이 평가하는 출석 교회의 고령친화 적합도는 74점!

- 고령친화교회(Age Friendly Churches)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 없이 고령 교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은 삶을 활력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한다. 출석하는 교회가 고령자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100점 만점으로 평가토록 한 결과, 평균 74점으로 나타났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100명 이하' 교회와 '1001명 이상' 교회가 상대적으로 고령친화 적합도 점수가 높았다. 소형 교회의 경우 목회자와의 친밀도 측면에서, 중대형 교회의 경우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적합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교회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교회의 고령친화성이 고령 교인의 교회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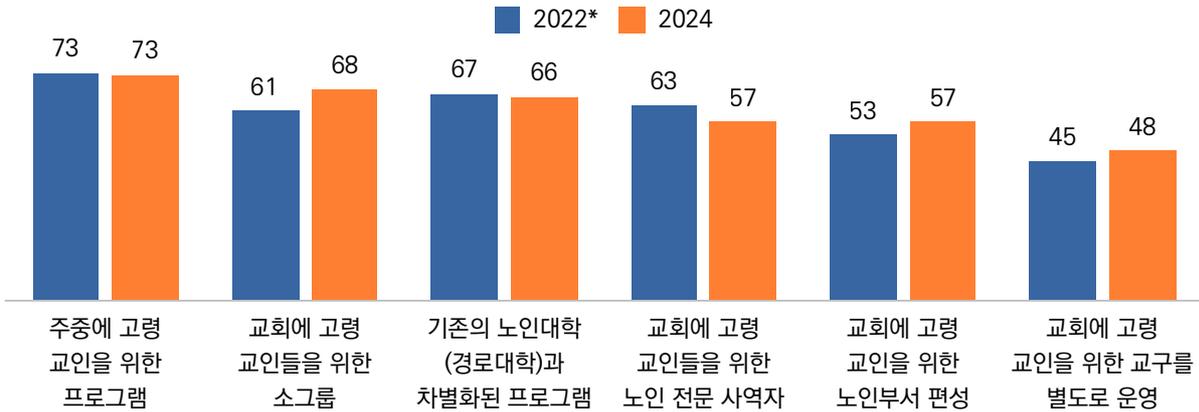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 고령친화 적합도 평가 (65세 이상 교인, 평균)



## 고령 교인을 위한 교회 정책, ‘주중 프로그램’ > ‘소그룹’!

- 고령 교인을 위한 교회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물어보았다.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고령 교인을 위한 주중 프로그램(73%)’이었고, 다음으로 ‘교회에 고령 교인들을 위한 소그룹(68%)’, ‘기존의 노인 대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66%)’ 순이었다.
-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소그룹’과 ‘노인부서 편성’, ‘고령 교인을 위한 별도의 교구 운영’ 비율이 높아졌는데, 연령별 특성과 노년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소그룹 편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고령 교인에 대한 교회 정책의 필요성 (65세 이상 교인, ‘필요하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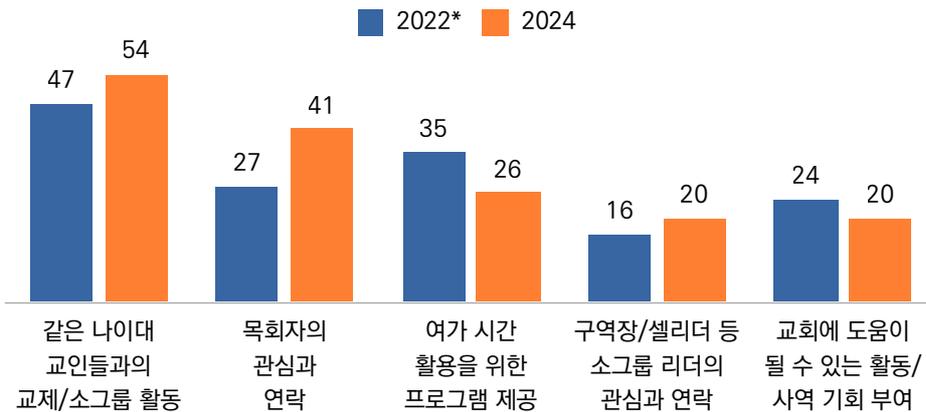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 소그룹 욕구, 2022년 대비 상승!

-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 사항을 보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소그룹 활동’이 54%로 2년 전 조사 대비 증가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고령 노인에게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 편성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 2위로 응답된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비율은 2년 전 조사 대비 가장 크게 증가(14%p)했는데, 고령 교인에 대한 목회자의 영향력과 노인의 외로움과도 관련이 있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림]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 (65세 이상 교인, 1+2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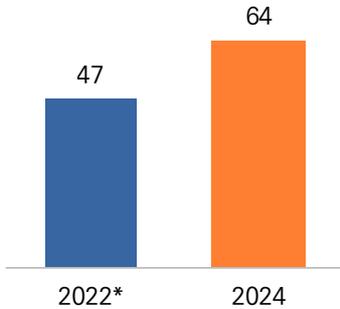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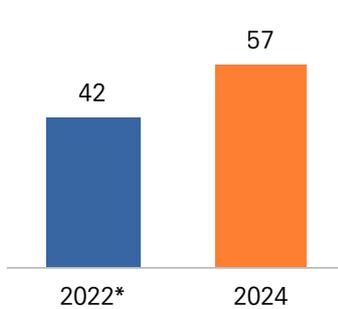
## 실제 고령 교인의 정기적 소그룹 활동, 2022년 대비 크게 늘어!

- 교회에 고령 교인을 위한 소그룹이 있는 경우는 64%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7%p나 증가한 수치다.
- 한편, 고령 교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의 응답자의 '정기적 참여'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2년 전 대비 증가했다(15%p).

[그림] 고령 교인을 위한 소그룹 존재 비율  
(65세 이상 교인, %)



[그림] 소그룹 정기적 참여 비율  
(고령 교인 소그룹 있는 교회의 65세 이상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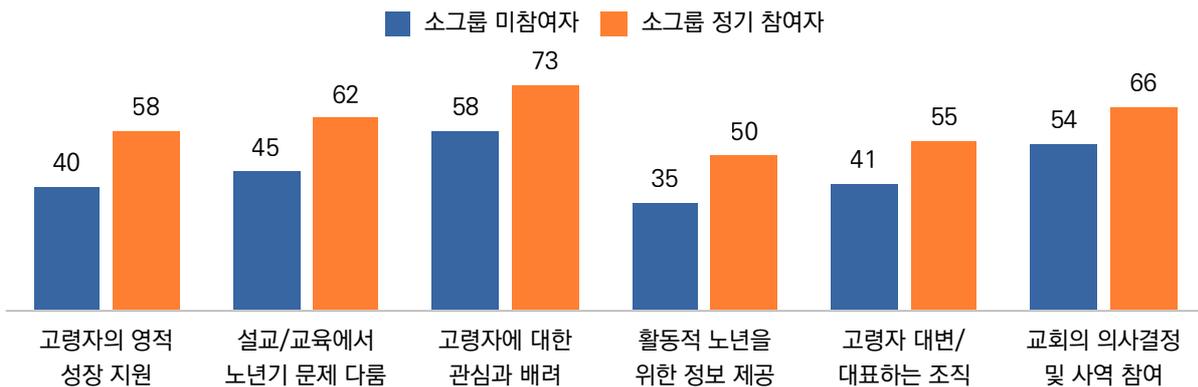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 소그룹 참여,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

- 소속 교회의 고령친화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소그룹 참여 여부별로 '긍정률'을 비교해보니, 소그룹 정기 참여자가 소그룹 미참여자 대비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높았다. 이는 소그룹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소속교회가 고령친화교회라고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고령친화교회는 소그룹이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 두 그룹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고령자의 영적 성장 지원'과 '설교/교육에서 노년기 문제 다룸'으로 17~18%p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출석교회 고령친화성 평가: 소그룹 정기적 참여자 vs 소그룹 미참여자 (65세 이상 교인,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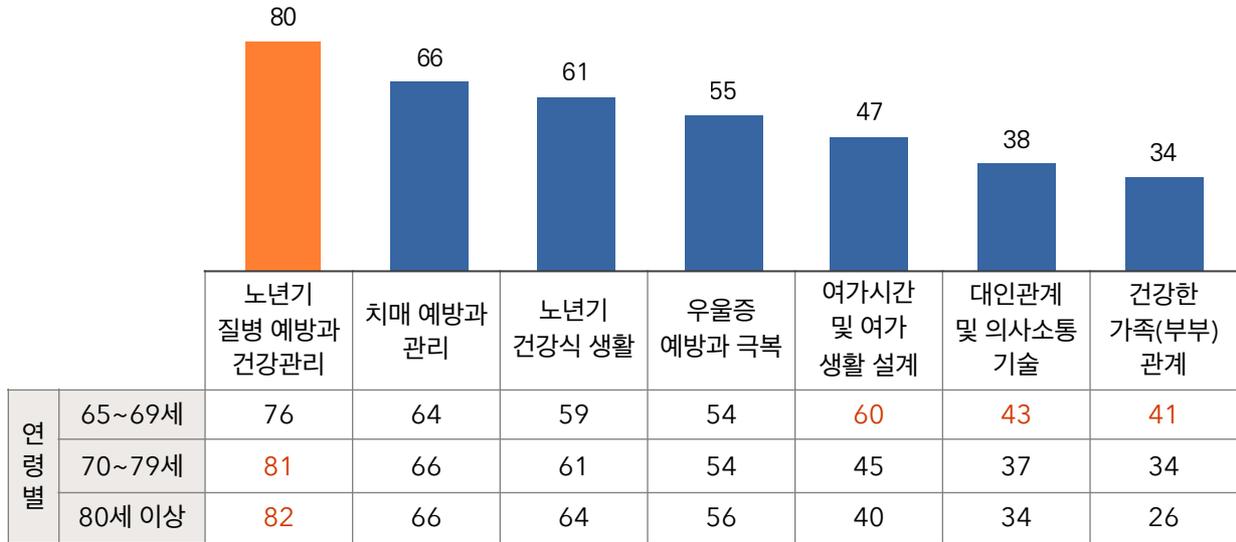


Note) 총 13개의 평가 항목 중 두 그룹의 결과 차이가 큰 항목 상위 6개임

## 연령대 낮은 노인일수록 대외 활동을 위한 교육 더 원해

- 고령 교인에게 현재 필요한 노년기 교육은 무엇일까? ‘노년기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치매 예방과 관리’, ‘노년기 건강식 생활’, ‘우울증 예방과 극복’ 등 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주제가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65~69세의 경우 ‘여가시간 및 여가 생활 설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등 보다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주제들이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년기 교육 기획 시 연령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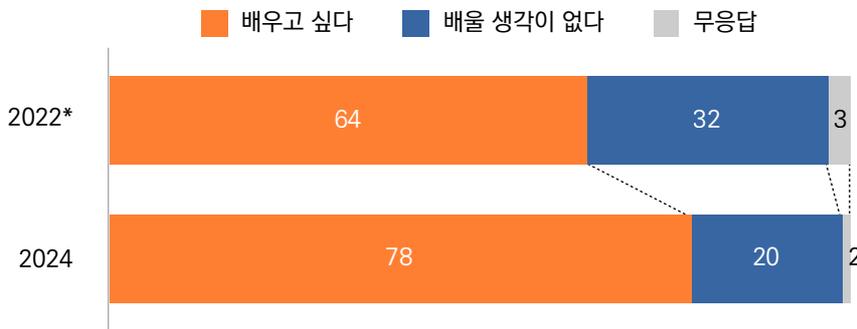
[그림] 현재 필요한 노년기 교육 (65세 이상 교인, 중복응답, 상위 7위, %)



## ‘죽음에 대한 교육 받고 싶다’, 2022년 보다 증가

-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한다면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78%로 대부분의 고령 교인이 관심을 보였다. ‘죽음 교육을 받을 의향률’은 2년 전 조사 결과(64%)보다 더 높아졌는데, 기대 수명과 함께 노후 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웰다잉’ 욕구도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크리스천 신앙관에 맞는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죽음에 대한 교육 받을 의향 (65세 이상 교인, %)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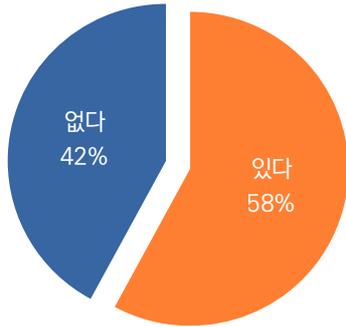
# 03

## [목회자의 노인 목회 인식]

### 최근 1년간 노년 주제 설교/교육 실시한 목회자, 10명 중 6명!

- 이번에는 담임목사 대상으로 노인 목회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살펴본다. 최근 1년간 노년 주제 설교 및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6명(58%) 정도로 나타났다.
- 노년 주제 설교/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담임목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대도시', 시무교회 규모 '500명 이상'인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년간 노년 주제 설교 및 교육 여부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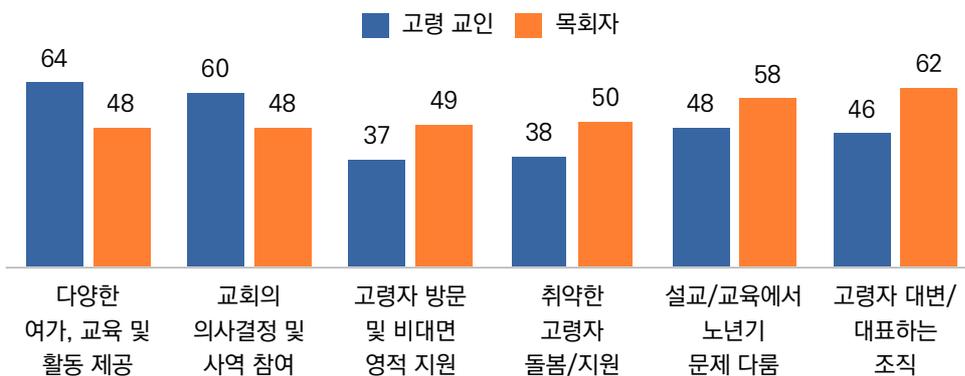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별 노년 주제 설교 및 교육 실시율 (담임목사, '있다' 응답률)

연령별	49세 이하	50%
	50대	58%
60세 이상	69%	
지역크기	대도시	63%
	중소도시	51%
	읍/면	58%
시무교회 규모	29명 이하	56%
	30~99명	55%
	100~499명	61%
	500명 이상	69%

## 목회자가 생각하는 시무교회 고령친화성 평가, 고령 교인과 차이 있어!

- 목회자와 고령 교인에게 각각 시무교회와 출석하는 교회가 고령자 친화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느끼는지 물어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 고령 교인의 경우 '다양한 여가, 교육 및 활동 제공'과 '교회의 의사결정 및 사역 참여'에서 목회자보다 동의율이 더 높은 반면, 목회자의 경우 '고령자 대변/대표하는 조직' 등에서 고령 교인보다 높았다. 다만 전체 항목에서 두 그룹 간 격차는 10%p 이상 나타나 목회자와 고령 교인 간 고령친화교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소속교회의 고령친화성 평가: 고령 교인 vs 목회자 ('그렇다' 비율, %)



## 고령친화적 교회로의 장애, '인력 부족'과 '전문성'!

- 목회자가 꼽은 고령친화적 교회로의 장애요인은 무엇일까? '인력 부족'과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정 부족', '사역 콘텐츠 부족' 등의 순이었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순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29명 이하 교회는 '재정 부족'을, '30~499명' 규모의 교회는 '인력 부족'을, '500명 이상 교회'는 '경험/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교회 규모에 따른 노인 목회의 필요 요인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고령친화적 교회로 나아가기에 어려운 점 (담임목사, 상위 5위, %)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		인력 부족 (26%)	경험/전문성 부족 (25%)	재정 부족 (20%)	사역 콘텐츠 부족 (14%)	관심 및 인식 부족 (12%)
교회 규모 별	29명 이하	재정 부족 (28%)	경험/전문성 부족 (22%)	인력 부족 (21%)	관심 및 인식 부족 (15%)	사역 콘텐츠 부족 (8%)
	30~99명	인력 부족 (28%)	경험/전문성 부족 (20%)	사역 콘텐츠 부족 (20%)	재정 부족 (18%)	관심 및 인식 부족 (9%)
	100~499명	인력 부족 (34%)	경험/전문성 부족 (29%)	사역 콘텐츠 부족 (13%)	재정 부족 (12%)	관심 및 인식 부족 (10%)
	500명 이상	경험/전문성 부족 (41%)	재정 부족 (15%)	사역 콘텐츠 부족 (15%)	인력 부족 (13%)	관심 및 인식 부족 (10%)

## 이번호 요약

### 1. 고령 교인의 신앙, 목회자의 영향 압도적으로 높아

- 고령 교인은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71%)'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는 전체 교인(37%)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 2. 고령 교인의 교회 사역 참여 욕구 더 증가해!

- 고령 교인의 사역활동 상한 연령에 고령교인은 77세로 응답해 일반 교인의 생각(69세)보다 크게 높았다.
- 은퇴를 앞둔 고령 교인의 경우 '은퇴 후에도 계속 사역하고 싶다'가 34%로 2년 전 조사 대비(25%) 크게 증가했다.

### 3.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 '소그룹'

-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소그룹 활동'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2년 전 조사 결과(47%) 대비 증가했다.
- 출석교회에 대한 고령친화성을 항목별로 평가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정기적 소그룹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고령교인의 신앙과 시니어 목회 조사 결과 및 대한 발표회 (목회데이터연구소)
- ▶ [기사] 65세 이상 인구 '1천 만' 시대...'고령친화적 교회'가 뜬다 (CTS)
- ▶ [서적]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교회 (유기성 목사, 두란노)

## 관련 성경 구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 목회 적용점

시니어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있고, 이제는 체력과 시간의 여유까지 있다. 이는 고령 교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역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뜻한다. 고령화가 한국 사회보다 더 일찍 찾아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령 교인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한국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를 '소그룹'이라 지칭한다.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 소그룹을 응답했는데, 그 비율이 지난 2년간 더 증가하였다. 또 소그룹 활동하는 고령 교인이 그렇지 않은 고령 교인보다 소속 교회를 훨씬 고령친화적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 노년기는 돌봄과 영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가장 충족시킬 방법은 소그룹이 단연 효과적이다. 전 세대 중에서 고령층에서 소그룹 욕구가 가장 높다. 소그룹이 잘 안되는 교회의 경우라도 노인들만을 묶어서라도 소그룹을 시작해 볼 것을 권고한다.

다른 연령층과 달리 고령층은 신앙 성장 영향 요인으로 목회자 요인이 매우 크다. 다른 연령층은 가족,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고령교인은 목회자 요인이 절대적이다. 목회자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령 교인에게 행복감을 주고 삶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